

산사의 샘물-약수

돌틈으로 솟은 단물 한 모금 머금으면 나와 우주가 하나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젖줄이다. 생명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물과 함께 한다. 인간은 잉태되면 어머니 배속의 양수 속에서 인체조직이 형성되고 발육되며, 달이 차면 양수와 함께 세상에 나온다. 우리 몸은 갓 태어난 아이의 경우 체중의 약 87%, 성인은 60~70%, 노인은 50~60%가 물이다. 그래서 노화를 '건조의 과정'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물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렸다. 그 신앙의 한 가운데에는 샘이 있다. 첫 새벽 샘터에서 길어 떠놓은 맑은 물 한 그릇은 이미 물리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물'이 아니다.

조선 후기 다성(茶聖) 초의선사는 <동다송>이라는 책 '품천(品川)'에서 좋은 샘물의 조건으로 8가지를 들고 있다. 맑고, 차고, 가볍고, 부드럽고, 무색, 무취, 무미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샘의 자연미를 강조한 것이다. 땅 속의 수맥이 지층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광물질을 함유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지표면을 들고 나오면서 이뤄진 샘을 이른다. 사실 샘물은 지표로부터 지하 30~40cm의 지층을 거치지 않으면 증류수와 다를 없는 맹물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요즘 시판중인 먹는 샘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대부분 지하 수백 미터에 쇠파이프를 박아서 퍼 올리기 때문이다. 땅에 쇠파이프를 박는 일은 자연의 순수성을 해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뽑아 올린 물은 자연으로부터 강탈한 물이어서 자연의 섭리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좋은 물이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물이다. 주변의 들꽃 내용과 새 소리, 청초하기 그지없는 산 기운과 해맑은 하늘까지 담고 있는 물은 그대로 자연미의 극치를 이룬다.

일체의 사물을 불성의 현현으로 보는 불교에서 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찍이 원효대사는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신

뒤 깨달음을 얻었고, 석대지장샘은 '성불의 샘'이라고 불린다.

그래서인지 전국적 걸 가운데는 약수나 샘물로 이름난 곳이 많다. UN이 정한 물의 날(22일)을 맞아 물맛 좋기로 소문난 절을 알아본다.

오대산 수정암 우동수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이 한강 물을 사서 먹었는데 강물 한가운데로 흐르는 물을 한중수(漢重水)라 하여 다른 물보다 3배나 비싸게 팔았다고 한다. 이 물이 바로 오대산 우동수다. 우동수는 오대산 수정암 사암분 앞에 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물이 마르기 시작한 뒤부터는 수정암에서도 암자 뒤 바위틈에서 나오는 석간수를 먹고 있다.

승주 선암사 약수

선암사에는 800년 전통의 다원이 있다. 당연히 선암사엔 맑고 그윽한 샘물이 넘쳐 흐른다. 경내 곳곳에 있는 샘물에는 어김없이 불꽃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문맛을 더한다. 입에 머금으면 마치 꽃잎을 삼킨 듯 입 안 가득 꽃내음이 고인다.

곡성 태안사 돌샘

지금의 태안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구산 선문의 유서 깊은 절로 한때 화엄사를 거느리기도 했다. 경내에는 지름 20cm 되는 큰 연못이 있고 가운데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는 석탑이 있다. 대웅전에서 선방으로 가는 길을 따라 2.3분쯤 가면 계류가 나오는데, 그 계류에 걸린 돌다리 아래에 이끼를 잔뜩 머금은 석간수가 돌샘이다.

구례 천은사 감로천

창건 무렵 절 앞뜰에 '정신을 맑게 해 준다'는 감로천이 있어 절의 이름을 감로사라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불타 흔적하면서 절 이름을 천은사로 고쳤다. 절을 중간할 때 감로수를 지켜 주면 구렁이를 죽인 후 감로수가 맑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홍루를 지나 사천왕문으로 오르는 계단 왼쪽에 커다란 석조가 있다. 감로천 옆 첫 집 앞에도 작지만 예쁜 샘물이 있어 수객의 아쉬움을 달랠다.

구례 화엄사 옥천

화엄사는 상계사와 함께 우리 나라 차문화의 중심지다. 차의 맛은 물에 있다는 말이 있듯 물맛 또한 유명하다. 범종각 북서쪽 산자락의 울창한 동백숲 아래서 솟는 옥천이 바로 화엄사 차맛의 전통을 지켜온 샘물이다. 귀한 샘물이라 이름도 '구슬 옥(玉) 자를 썼다. 요즘도 스님들은 차를 달일 때 이 물을 쓴다고 한다.

두륜산 일지암 유천

일지암은 조선 후기의 선승 초의선사가 우리 나라 다도를 중흥시켰던 곳이다. 일지암 유천은 초의선사가 좋은 물이라 자랑하던 샘물로 초의선사가 강조한 물의 여덟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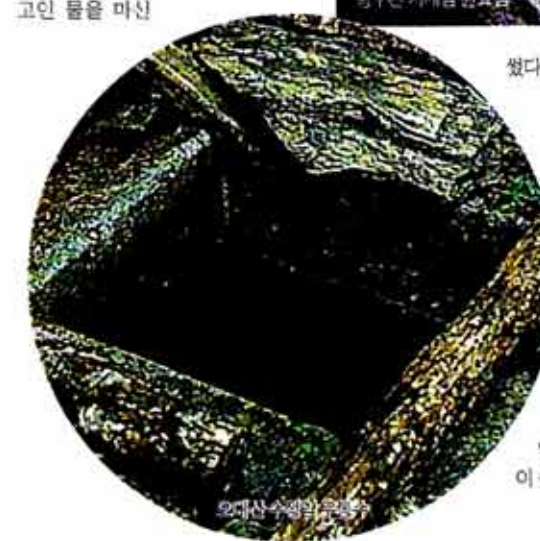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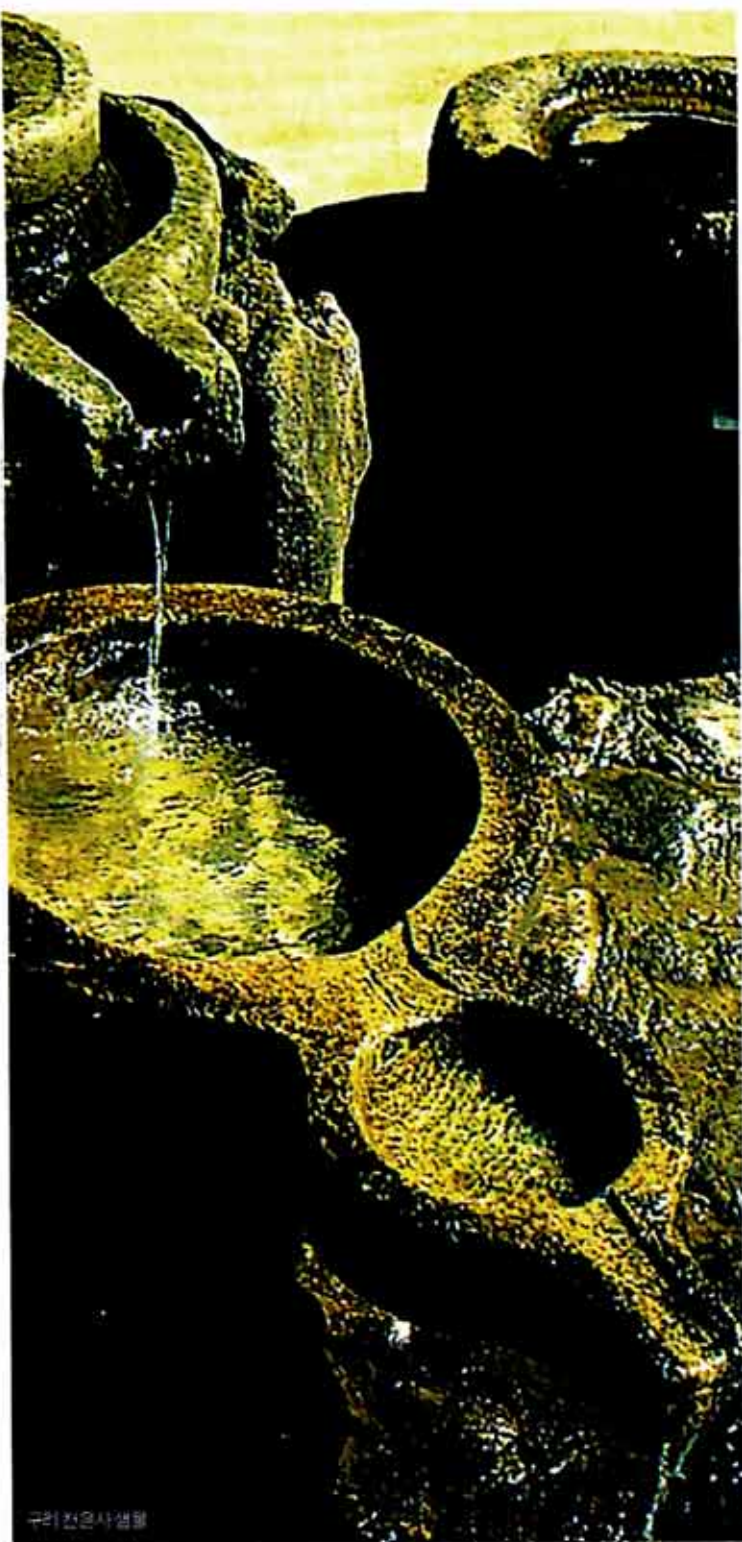
부여 무량사 샘물

무량사는 매월당 김시습이 말년에 머물던 곳이다. 극락전 앞뜰 한편에는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다. 조각해 놓은 용머리의 입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 본당 위쪽 태조암의 물맛도 좋다.

동두천 자재암 원효샘

원효대사는 이 땅 곳곳에 수많은 샘을 세운 것으로 나오는데, 스님이 세운 절에는 대개 맛있는 샘물이 솟고 있다.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소오산 자재암 역시 원효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나한전이 자리잡은 동굴에 원효샘이라는 맛있는 석간수가 흐른다. 차를 즐겼던 고려시대 문인 이유보는 이 곳을 지나 자재암 석간수 물맛을 보고는 감탄하여 '원효가 찾아드니 돌 틈으로 단물이 솟고'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글=권형진 기자(jiny@buddhapa.com)
사진제공=민병준(여행 칼럼리스트)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죽순직화구이

신라 화랑의 대표격인 김유신은 전국 산천을 돌며 술안과 생삼을 먹으면서 심신을 연마했다. 자식을 훈육할 때 김유신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할 만큼 그의 용맹과 명성은 천하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김유신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 할 지병이 있었는데, 바로 전맹증이었다. 원래 술안을 많이 먹으면 치매증상이 오게 되어 있다. 술안

에는 혈액 속에서 분해되지 않는 성분 이 있어 이것이 몸에 축적되면 모세혈관을 막기 때문이다. 김유신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화류계에 명성이 자자했던 절세미인 천관(天官)이 운영하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산해진미가 나오는 다룬 술집과는 달리 천관녀의 집에서는 달랑 두 가지의 음식만 나왔다. 처음

소변 잘 통하고 증풍에 효과

에는 푸대접을 받는다고 오해했지만, 천관녀의 집에서 술을 먹고 나오면 늘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 후 그는 더 자주 그녀의 집을 찾았고 천관녀와의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천관녀의 집에 발길을 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애마가 술이 만취한 김유신을 등에 태우고, 놀가면 천관녀의 집으로 데려가자 술에서 깨어난 김유신은 '네 이름, 김네가 나를 노류장화 더미에 떨궈'하면서 애마의 목을 손가락에 내리

쳤다. 그리고 어느 날 김유신은 천관녀로부터 작은 꾸러미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집에서 늘 먹던 콩과 죽순이 들어 있었다. 그 후 재상이 오른 김유신은 천관녀가 자신에게 한을 품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관사를 지어 혼을 달랬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죽순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죽순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얼굴에 열이 나거나 머리가 자주 상기되는 사람에게 좋다. ■ 약선식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 재료** 죽순, 들기름, 참기름, 간장, 초고추장, 은행
- 요리법** ① 죽순은 반을 길라 싹뿔물에 삶아서 아린 맛을 빼낸다.
② 들기름을 발라서 석쇠에 살짝 굽는다.
③ 구운 죽순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볶은 은행을 곁들여 담는다.
④ 기호에 따라 참기름과 간장을 섞은 양념장이나 초고추장을 곁들여 먹는다.
* 뇌압이 높거나 인압이 높은 사람에게 효험이 있고, 어린 아이의 경기, 화로 인한 담과 말 못하는 증풍, 고열 등에 좋다. 단, 해당 계통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몸을 냉하게 하므로 먹지 말 것.